



시멘트와 매연이 늘어서
자연의 극치 노고단
야생화 밭으로

시멘트와 자동차 매연에 갇혀 사는 도시인들에게 꽃, 그것도 자연의 극치인 야생화를 보는 일은 무엇에 비할 수 없는 행복일 것이다. 지금 지리산 노고단에 가면 갖가지 야생화를 원 없이 볼 수 있다. 초가을 무렵이면 노고단에 여름꽃과 가을꽃이 함께 피어 색깔 다양한 꽃밭을 이룬다.



시멘트와 자동차 매연에 갇혀 사는 도시인들에게 꽃, 그것도 자연의 극치인 야생화를 보는 일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행복일 것이다. 지금 지리산 노고단에 가면 갖가지 야생화를 원 없이 볼 수 있다. 초가을 무렵이면 노고단엔 여름꽃과 가을꽃이 함께 피어 색깔 다양한 꽃밭을 이룬다. 특히 노고단 생태계는 '아-고산 생태계'라 하여 울창한 삼림과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고산 사이 중간 위치에 있는 생태계로서 풀과 구상나무 등 키가 자랄한 나무들만 자란다.

계절이 바뀌는 모습은 자연 속에 들어가면 눈과 귀로 생생하게 파고 든다. 가장 먼저 달라진 바람결과 함께 하늘이 한층 맑아지고, 풀벌레들의 목청이 가늘고 높아지며, 들판의 색깔이 쇠어 간다. 그 가운데서도 들꽃들의 피고 짐은 가장 선연하게 계절의 바뀌고 세상만사의 변화를 말해주는 '철학 교과서'다.

지리산 노고단, 일년의 반 이상이 비구름에 가려져 있는 그곳엔 '구름 위의 꽃밭', '천사들의 꽃다발'이라고 불리는 야생화밭이 있다. 노고단 야생화 낙원엔 지금 여름꽃 원추리와 가을꽃 이질풀꽃이 함께 피어서 '철 바꾸기'를 하고 있다. 끝물에 든 원추리는 마지막 자태를 가다듬고 막 피어나기 시작한 이질풀꽃은 해맑은 분홍 색깔로 쪽빛 하늘을 맞고 있다. 노고단 들꽃밭엔 그 밖에도 동자꽃, 참취꽃, 도라지잔대꽃, 모싧대꽃, 핑의비름, 기린초, 며느리밑씻개, 며느리밥풀꽃, 짚신나물꽃, 마타리, 범꼬리, 옥잠화, 구릿대, 물매화, 여우팔 등 20여 종류가 함께 섞여 서로 몸을 비벼대고 있다. 이 지리산의 들꽃들은 노고단에만 피어 있는 것은 아니다. 노고단 올라가는 길목인 구례군 광의면 천은사 들머리에서부터 피어 길손들에게 환한 마음을 안겨준다. 특히 짚신나물꽃과 며느리밥풀꽃, 이질풀꽃, 구릿대꽃 등은 성삼재 주차장에서부터 노고단에 이르는 등산로에 피어서 등산객들에게 함박웃음을 지어 보낸다.



Tip

노고단 찾아가는 길

승용차는 호남고속도로로 전주~남원~구례, 기차는 구례구역(새마을호, 무궁화호)에서 내린다. 남원에서 구례로 가는 길은 남원~밤재~산동마을~순천간 직통 국도를 타고 가다가 구례 나들목으로 들어간다. 노고단은 구례읍에서 승용차(택시)를 타고 성삼재까지 올라가고, 성삼재 주차장에서부터는 걸어간다. 주차장에서 노고단까지 40분. 구례구역 앞의 섬진관광광호텔과 화엄사 관광단지 앞 한화리조트 등 구례읍과 화엄사 관광단지에 숙박시설이 많다. 구례구역에서 곡성에 이르는 섬진강변 식당들에 들르면 은어회와 은어튀김 및 참계탕 등이 별미다. 구례구역 앞 섬진관광광호텔 건너편, 옛기와집 한식당 남촌회관은 싱싱한 쇠고기와 묵은김치 맛이 좋다.



지리산 야생화를 미리 만나는 야생화학습원

노고단 야생화를 보러 가는 길에 꼭 들러볼 곳이 있다. 구례읍 들머리에 있는 구례군농업기술센터가 그곳이다. 기술센터 안에는 지리산야생화학습원이 마련되어 있다. 여름이면 부레옥잠과 이질풀꽃이 화사하게 피는 이곳은 지리산 일대에서 철따라 피는 들꽃들이 다 내려와 있다. 야생화학습원에서는 들꽃들을 설명을 곁들여 보여주고, 번식시켜 분양도 한다. 따라서 이 야생화학습원에 들러 야생화에 대한 예습을 하고 가면 지리산 야생화들을 훨씬 친근하게 만나볼 수 있다.

이 지리산 들꽃 만나기는 우리 땅 자연이 주는 원형의 정서와 함께 분수껏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원칙’을 알게 해 준다. 들꽃들에 담긴 사연이나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꽃길을 걸어가면 우리네 삶의 애뜻한 자투리가 엿보이면서 현재의 삶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동자꽃은 어린 동자승의 ‘가련한 죽음’을 담고 있다. 옛날 강원도 설악산 한 작은 암자에 노승이 부모 없는 아이를 데려다 기르고 있었다. 어느 해 동짓날 노승은 겨울 채비를 위해 산을 내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폭설이 내려 길이 막혔다. 며칠 뒤 눈이 그쳐 서둘러 절에 돌아와 보니 동자는 노승을 기다리며 텃마루에 앉은 채 얼어 죽어 있었다. 스님은 동자를 양지뼉에 묻어 주었다. 이듬해 여름 그 무덤 가에는 동자승의 얼굴처럼 동그랗고 빨간 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

며느리밥풀꽃은 가난한 시절 며느리의 한을 담고 있다. 고약하게 시집살이를 하던 며느리가 밥을 짓다가 뜬이 들었는지 보려고 주걱에 붙은 밥풀 몇 알을 물었다. 이것을 본 시어미가 집안 음식을 다 축낸다고 며느리를 마구 때려 죽게 하였다. 이듬해부터 햅쌀이 날 즈음 빨간 입술에 밥풀을 문 모습의 꽃이 산속에 피어났다. “음식이 아니라 밥풀뿐이어요.”라고 말하는 이 꽃은 세상을 한탄스러워하며 수줍음을 잘 타서 산속에서만 핀다고 한다.

며느리밀싹개는 가는 줄기와 연약한 잎으로 바위 틈새나 습지 잡초 사이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려운 삶 속의 모진 며느리’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줄기와 잎에 성가시게 가시가 난 그 풀로 며느리더러 어찌라고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그 시어머니의 심성이 너무나 모질게 느껴지면서 웃음이 절로 터진다. (☹)